

누런 치아가 너무 싫어요.. ☹️

Q) 황치가 싫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년간에 걸쳐 저를 눈물짓게 만든 고민은 치아의 색이 누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치'라는 것이지요. 양치질도 어릴 때부터 거르지 않고 해왔고, 저의 치아색이 남과 다름을 알고 나서는 피가 날 정도로 뽀뽀 닦았습니다. 이를 하얗게 한다는 약도 사용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의 치아를 보고 남들이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잘 웃지도 못합니다. 이제 인상 쓰는 것 대신,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활짝 웃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서울 구로구에서 현수 드림(가명)

A)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색이 누런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이 다른 것처럼 흰 치아가 있는가 하면 노란 색 계통, 회색 계통, 심지어 붉은 빛 계통까지 치아의 색은 다양합니다. 또한 치아 형성 부진증과 같은 선천적 질병으로 인해 약해져 노란빛을 띠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임신 중 특정 항생제를 복용할 때 변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 양의 경우 치아 상태를 그냥 '황치'라고만 하여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치과 의사와 직접 상담해보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수 양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여기에 몇 가지 치료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치아 연마(polishing)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 니코틴 등에 의한 착색일 때 치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치아 표면을 약간 삭제한 후 광을 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치아 표백(bleaching) 방법이 있습니다. 항생제에 의한 변색이나 치아 손상 후 변색된 경우, 선천적 황치의 경우에 집에서 또는 치과에서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75%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복합레진 접착(composite resin bonding)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아 표면을 약간 삭제한 후 복합레진을 이용하여 색깔을 맞추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변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셀린 베니어(Laminated porcelain Veneer)라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0.2-0.3mm 삭제 후 도자기로 만든 얇은 판을 치아에 접착하는 것으로 가격이 비싼 것(개당 25-35만원)이 흠이나 색깔의 조화가 우수하고 변색의 우려가 없습니다.

글/박경희(살롬치과 원장)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